

'口'字形 重層寮舍의 建築特性에 관한 研究

홍 승 재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김 정 훈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1. 序 論*

본 연구는 사찰건축에서 重層寮舍에 관한 연구이다. 요사는 승려들의 修學·精進과 주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서 伽藍의 형성 초기부터 중요한 시설이었으며 불상의 발생 이후 가람배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시설로 일관되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사찰건축 연구들은 主要殿閣에 관심이 집중되므로써 요사에 대한 많은 연구¹⁾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특히 상하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重層寮舍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전통건축에서 重層으로 구성된 건물은 그리 많지 않다. 비록 외관은 중층구조로 하였다 할지라도 내부는 通層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중층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단층건물과는 달리 架構의 重疊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고급의 기술과 상하 공간의 연결 및 立面 意匠 등에 대한 별도의 考慮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寮舍 중에는 평면 전체 또는 일부를 두 개의 층으로 구성한 중층요사를 찾아볼 수 있다. 현존하는 중층요사는 仙巖寺 寮舍群과 來蘇寺 說禪堂 등 10여 채에 이른다. 대부분이 조선 후기에 건축된 것으로서 남부 지방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현존하는 중층요사의 평면은 건물 자체로서 폐쇄성을 띄고 있는 '口'字形이 대부분이며 일부 '一'字形과 'ㄱ'字形도 존재한다.²⁾ 그 중 '口'字形 중층요사는 입지와 상층구성방법에 따라 내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간적 특성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층요사의 주류를 이루며 자체 평면만으로 공간의 완결성을 보여주는 '口'字形 중층요사를 대상으로 중층요사의 공간 구성과 구조, 의장 등 건축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답사를 통한 인터뷰 및 실측조사를 병행하였다. 실측조사는 平面과 立面을 실시하였고, 각 사찰에서 비교

* 이 논문은 원광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됨.
1) 이용목, 요사채, 대원사, 1994
이완건, 한국사찰건축의 요사에 관한 연구, 홍대 석논, 1993
김도연, 한국사찰요사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논, 1993
심보인, 승주 선암사에서의 생활과 공간, 연대 석논, 1996
성현경, 조선후기 전라도 사찰요사의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 명지대 석논, 1998

2) '一'字形 중층요사는 송광사 문수전이 있으며, 'ㄱ'字形은 장곡사 설선당과 대흥사 용화당이 있다.

적 오랜 기간을 머문 스님을 대상으로 각 공간의 活用 用度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研究對象 重層寮舍

寺刹名	寮舍名稱	建立年代	重層構成
仙巖寺	尋劍堂	1825年(純祖25)	全體
	說禪堂	1825年(純祖25)	部分
	千佛殿	1844年(憲宗10)	全體
	滄波堂	19세기경	部分
來蘇寺	說禪堂	1640年(仁祖18)	部分
松廣寺	海清堂	1640年(仁祖18)	部分
	臨鏡堂	1797年(正祖21)	部分
華嚴寺	寂默堂	1782年(正祖6)	部分

2. 重層寮舍의 形成

‘重層建築’이란 용어는 ‘重’과 ‘層’의 두 가지가 복합된 용어로 ‘重’이란 말은 重疊된다는 의미이다. 중첩된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개를 겹친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를 포괄한다는 의미도 포함하는 包括的인 概念으로 사용³⁾되나 본 연구에서의 重層은 단순히 두 개의 層이 겹치는 의미에 局限하고자 한다.

일찍이 중층건물은 三國時代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는 주로 宮闕이나 寺刹 主佛殿의 莊嚴 또는 權威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重層寮舍는 이와는 달리 空間의 活用 側面에서 요구되어진 것으로 정확히 언제부터 중층요사가 건립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고려시대 양주 회암사에 대해 기록한 牧隱 李穡의 「檜巖寺 修造記」⁴⁾를 보면 사찰내에 여러 개의 요사군이 있었으며 각 요사군에 수장을 위한 별도의 창고와 고루들이 있어 요사와

고루 등 수장시설이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중층요사들은 임란이후부터 주로 조선후기에 건립된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조선시대 사원경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려 때 중층을 이루었던 불교는 조선개국과 함께 송유억불정책으로 인하여 탄압을 받게 된다. 寺刹들은 산중의 所産物을 本圀에 봉납해야 했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의승군이 편제되면서 불교는 가중된 피해를 입게 된다⁵⁾. 따라서 중앙의 誅求를 피하여 절을 떠나는 승려들이 발생하게 되어 재원의 부족을 느끼게 되는 사찰들은 불필요한 전각들을 없애거나 그 기능을 통합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론과 연관지을 수 있는 것으로 朝鮮 末期 서울·경기 일원의 願堂 寺刹들에 지어진 대방채를 들 수가 있다. 이 건물은 佛堂, 僧房 및 寮舍의 기능까지 갖추어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접객의 기능을 갖는 루마루가 부설되기도 하였다.⁶⁾

위와 같은 사실이 重層寮舍 形成의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는 없으나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대방채와 중층요사는 여러 공간을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그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의 사찰들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여러 공간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중층요사가 다수 건립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重層寮舍는 僧侶들의 修行과 大衆供養이 이루어지는 大房, 승려들의 거처를 위한 僧房, 기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收藏空間 등 다양한 성격을 지니는 空間을 수용하였으며, 重層으로 구성하므로써 空間 活用の 극대화를 꾀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김봉건, 전통 중층목조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94, p7

4) 김홍식, 양주 회암사의 전각배치에 관한 연구, 문화재 18호, 1985

5) 이재창,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 1993 p201

6) 주남철·김성도, 朝鮮末期 서울·경기 일원의 寺刹大房 建築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11호, 1998, p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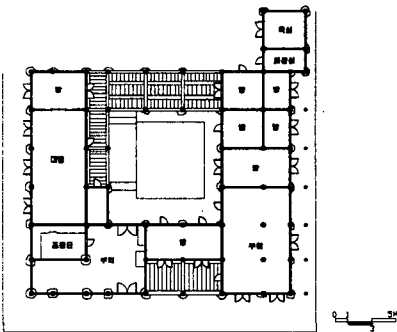
3. 個別 重層寮舍의 建築概要

3-1. 來蘇寺 說禪堂

내소사의 대중요사인 說禪堂은 내소사가 중창되던 1640年(仁祖18年)에 대웅보전 등과 같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平面은 내정을 중심으로 左側(대웅보전 앞마당측)으로 수행공간에 해당되는 대방(7)과 기타 부분들에 주거공간인 승방, 헛간 등이 구성되어 있다.

대방채는 장변이 6間, 단변이 3間으로 內庭 쪽으로만 退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의 높이차에 의해 내정 북측에 구성된 樓屋과 退가 연결되어 있다.



도면 1. 來蘇寺 說禪堂 平面圖

內庭의 북측에 구성된 樓屋은 柱후벽이 없이 內樓의 역할을 하며, 지형의 고저를 이용하여 하부에는 헛간 2間과 설선당 북측에 위치한 爐殿인 疉화실로 통하는 통로가 구성되어 있다.

僧侶들의 개인 방들로 이루어진 내정의 우측채는 重層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부는 근래에 개조한 입식 부엌과 僧房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칸 반통의 날개집을 연결한 형태이다. 상부는 북측에 위치한 樓屋과 연결되면서 通間으

7) 이용목, 요사채, 대원사, 1994, p25; 僧侶 生活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며 보통 '큰방'이라고도 한다. 大衆 生活의 근간인 예불(禮佛), 공양(供養), 운력(運力), 정진(精進) 중에 공양과 정진을 큰방에서 행한다. 또한 절 안에서의 크고 작은 사안을 의논하거나 알리며 죄를 묻는 등의 대중공사(公事)가 큰방 생활의 중요한 일이 된다.

로 된 수장공간이 있으며 바닥이 三段으로 형성되어 있다.

平面的 形態가 '口'字形을 이루면서 형성되는 內庭의 공간이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內庭쪽으로 구성된 大房의 退와 內樓의 역할을 하는 樓屋, 그리고 '口'字形 평면 형태를 이루는 각 채들이 그 立面의 높이와 규모를 달리하면서 시각적인 개방감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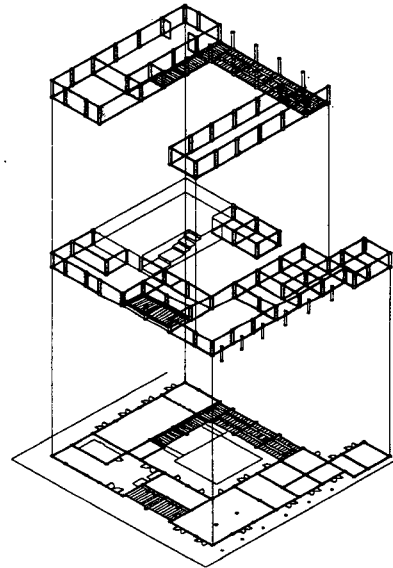


그림 1. 來蘇寺 說禪堂 層別 構成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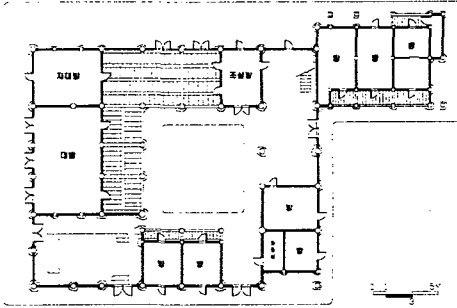
3-2. 仙巖寺 尋劍堂

1825年(純祖25)에 重建된 尋劍堂은 대웅전과 만세루가 이루는 軸을 중심으로 說禪堂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

평면의 구성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좌측에 대방과 지대방, 부엌이 위치하고 있으며 上·下·右側에는 개인 방들과 2층으로 오르기 위한 계단부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공간인 대방은 조석예불·사시불공·법회 등과 같이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불당이면서 修行僧의 講學과 參禪을 주도하는 구도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승려들의 공동 생활을 하는 취침장소로도 사용된 복합적인 공

간으로 시간대별로 다양한 기능을 수용했다.⁸⁾



도면 2. 仙巖寺 尋劍堂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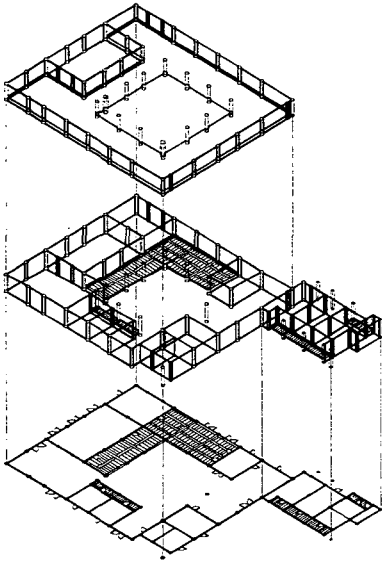


그림 2. 仙巖寺 尋劍堂 層別 構成體系

일반적인 요사채와는 달리 仙巖寺 寮舍의 경우는 사찰 내에서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승려들의 생활을 위한 거주 공간과 예불을 올리는 종교 의식의 공간이 동시에 요구됨에 따라 대방에 불단이 설치된 人法堂의 역할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대방과 접해 있는 지대방은 대방의 기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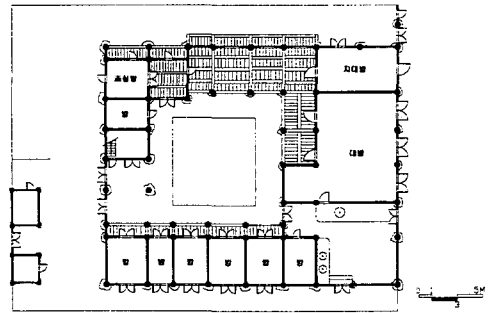
보조하는 동시에 취침과 휴식 등이 이루어지는 공동 생활 공간이며, 지대방과 조실방 사이의 대청은 반외부적인 성격을 띄는 공간으로 대중 공양이나 휴식 및 접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2층으로의 진입은 조실방 우측에 위치한 계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층의 용도는 주로 곡물 등을 收藏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층의 공간은 주로 宗教 儀式과 居住를 위하여 여러 間으로 구획되어 있는 반면 상층의 경우는 대방이 있는 間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通間으로 되어 있다. 외부로 향한 벽체는 관재로 마감된 곳곳에 창을 내어 환기와 채광을 고려하였으며 내부로는 마감하지 않고 개방하여 '口'字形 평면 형태로 인한 공간적 閉鎖感을 완화시키고 있다.

3-3. 仙巖寺 說禪堂

심검당과 같은 시기인 1825년에 重建된 說禪堂은 대웅전 앞마당을 중심으로 尋劍堂과 對稱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스님들이 공양하는 곳이다. '口'字形 평면 형태로 인하여 구성된 안마당을 중심으로 좌측에 대방과 지대방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공간에는 조실방과 승려들의 개인방, 그리고 4間的 대청이 구성되어 있다.



도면 3. 仙巖寺 說禪堂 平面圖

조실방과 대청, 지대방, 대방으로 이어지는 공간은 退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요사내에서 이루어지는 複合的인 行爲들(을)을 수용하기 위한 空間 擴張의 意味로 해석할 수 있다.

8) 심보인, 승주. 선암사에서 생활과 공간, 연세대, 1996, p57

상층의 공간은 대방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重層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청 상부는 전후 회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尋劍堂과 마찬가지로 외부와 내부가 각각 판벽과 개방된 형태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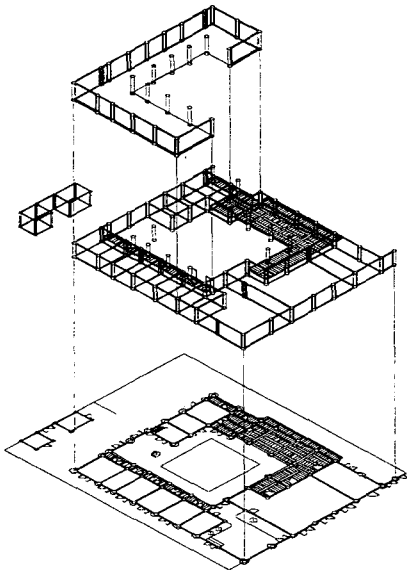


그림 3. 仙巖寺 說禪堂 層別 構成體系

2층은 收藏空間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진입은 안마당 좌측에 있는 창고의 계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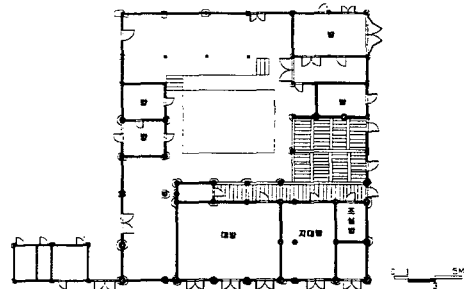
사진 1. 仙巖寺 說禪堂

9) 심보인, 前掲書, 연세대, 1996, pp96~97 ; 대청이나 뒷마루의 공간은 주로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說禪堂의 경우는 식사나 음식 장만이 주된 機能이 된다. 大廳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절기에 행자들이 供養을 하게 되는데 밥과 반찬은 大房 앞의 마루에서 채공이나 행자 중 한 명이 퍼서 마루에 차려진 상에 옮겨 놓게 된다. 반면 大衆僧侶들의 경우는 大房에서 발우공양이 이루어지며 이 때도 역시 대방 앞 마루에서 행자나 채공이 밥과 국, 반찬을 퍼서 大房 안으로 옮겨 놓게 된다.

3-4. 仙巖寺 千佛殿(無量壽殿)

1844年, 憲宗 10年에 중수 상량한 건물로 과거에 千佛殿이라고 불리웠으며 현재는 講院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사지에 건축된 경우로 평면의 전체가 重層의 구조를 하고 있다.

內庭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대방과 조실방이, 左·右側에는 승려들의 개인방과 대청이 배치되어 있다.



도면 4. 仙巖寺 千佛殿 平面圖

內庭의 위쪽에 면한 채는 하층에는 室이 구성되지 않은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선암사의 다른 ‘口’字形 요사채들보다 실의 구성 면적이 적으며 上層은 層高가 낮은 重層의 構造로 내정을 향해 개방되어 있다.

대방채의 좌측에 있는 익사는 방과 변소로 되어 있으며 ‘口’字形 몸채와 이어지는 대문간을 설치하여 부역을 통해 內庭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室의 규모에 있어서 대방은 3×2間으로 다른 공간들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를 띄고 있으며 지대방을 제외한 기타 승방들은 2×1間 또는 1×1間的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內部 中庭이 선암사의 다른 중층요사에 비해 협소한 관계로 조실방의 퇴에 연결된 대청을 3

×2間の 규모로 構成하므로써 한정된 中庭空間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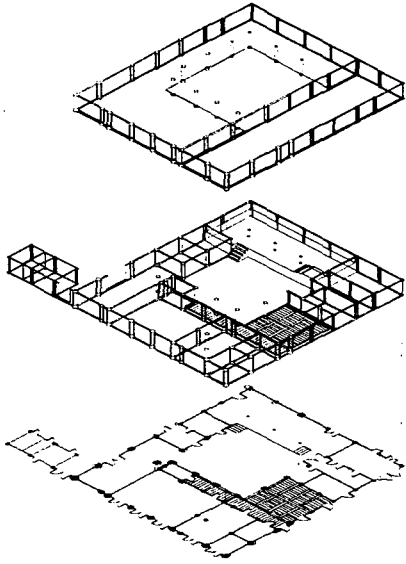


그림 4. 仙巖寺 千佛殿 層別 構成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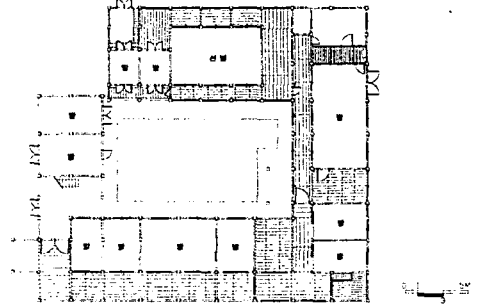
사진 2. 仙巖寺 千佛殿(無量壽殿)

3-5. 仙巖寺 滄波堂

현재 宗務所와 講院으로 쓰이고 있는 滄波堂은 근대적인 건축재료인 유리창을 사용한 건물¹⁰⁾로 평면의 구성은 講義를 하는 선방과 조

10) 현지 답사시 宗務所를 담당하는 스님은 인터뷰를 통하여 이 건물이 1900년대 초에 重創된 건물이 아닌 무량수전과 그 중창시기를 같이하며 1900년대 초에 日本으로 유학을 다녀온 스님이 滄波堂을 보수하면서 部分的으로 유리

실방, 그리고 일부 신도들이 사용하는 객실방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면 5. 仙巖寺 滄波堂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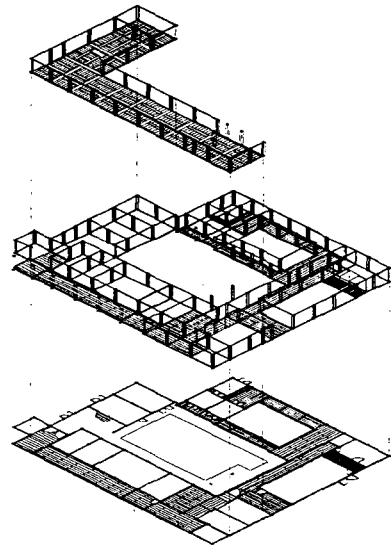


그림 5. 仙巖寺 滄波堂 層別 構成體系

각각의 空間은 內庭을 중심으로 좌측 채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마루로 연결되어 있다. 內庭의 아래쪽은 일반 신도들을 위한 禪房으로, 우측 영역은 일반 대중을 위한 종무소 공간으로, 內庭의 위쪽은 대중 승려들의 講學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한 건물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공간들을 複合的으로 수용한

와 일식마루 등을 사용한 것이라고 함.

건물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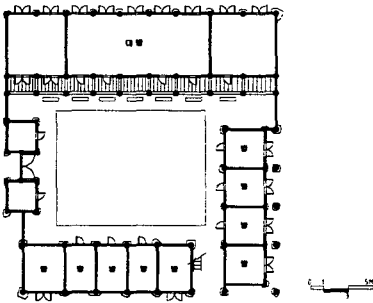
2층은 내정의 좌측 채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진입하게 되어 있으며 'L'字形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찰 내의 다른 '口'字形 요사들과 달리 내정으로 향한 벽면의 전체가 판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바깥쪽으로는 눈썹 지붕을 달아 내어 重層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3-6. 松廣寺 海清堂

海清堂은 仁祖 18年(1640)에 창건된 건물로 '口'字形의 平面構成을 하고 있으며 현재 大衆이 가장 많이 거처하는 僧房이다.

大衆 供養處인 대방이 있는 부분을 본채로 양 翼舍에 문간채와 승방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아래 쪽에 '一'字形으로 客室이 나열되어 있다.

실의 규모는 대방은 5×1間的의 규모이나 단변의 간살을 넓게 잡아 대중공양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방채에 연결된 양익사에 해당되는 승방들은 單間的의 규모로 승려들의 휴식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 채들은 담으로 연결하거나 문을 비워 通路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면 6. 松廣寺 海清堂 平面圖

전에는 본채의 右翼舍 부분에 부엌이나 식당 등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고루 밑에 방 4間을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退는 대방이 있는 본채에만 시설되어 있을 뿐 다른 채에는退가 없이 직접 방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다.收藏空間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은 아래 쪽 '一'字形 客실과 본채의 右翼舍 부분 상부에

'L'字形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벽과 살창, 널문 등으로 外壁이 구성되어 있다.

2층의 進入은 客실 옆의 계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客실 상부에 구성된 2層의 경우는 內庭쪽으로 별도의 복도를 가설하여 내부 공간으로 들어설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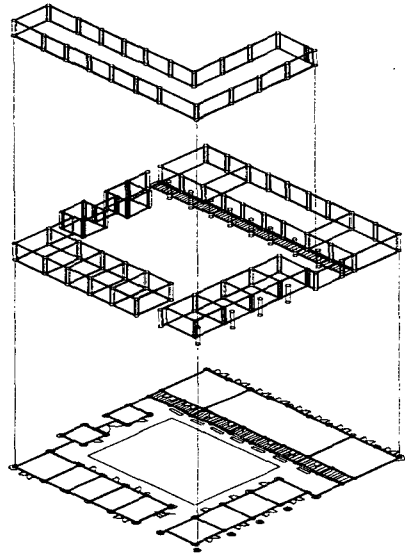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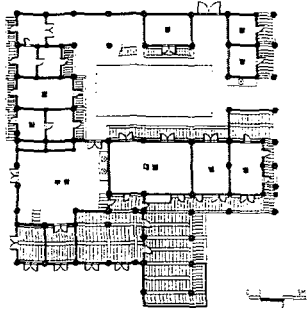


그림 6. 松廣寺 海清堂 層別構成體系

3-7. 松廣寺 臨鏡堂

松廣寺의 진입부인 下壇 領域에 속해 있는 臨鏡堂은 正祖 21年(1797)에 건립된 건물이다.

室의 구성은 승방과 대방, 부엌, 그리고 'ㄱ'字形으로 된 누다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정 좌측에 면한 채에 역'ㄱ'字形으로 重層을 구성하고 있다. 內庭의 右側에 면한 채는 아래 도면과 달리 現在는 통로를 없애고 室을 구성하여 宗務所로 사용하고 있어서 寮舍 내로의 진입은 내정 위쪽에 위치한 문간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臨鏡堂은 조선후기 서울·경기일원의 원당사찰에 지어지는 대방과 공간구성 측면에 있어서 유사점을 띄고 있다.



도면 7. 松廣寺 臨鏡堂 平面圖
(圖面參考: 요사채, 대원사)

따라서 승려들을 위한 공간이라기 보다 지방의 특수층을 위한 접객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을 감안할 때 전면에 구성한 루마루는 규모나 형태상 그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기타 대방이나 승방들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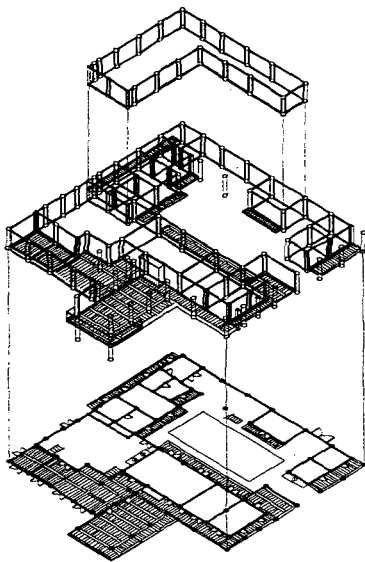


그림 7. 松廣寺 臨鏡堂 層別 構成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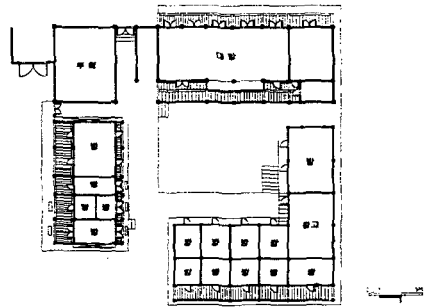
‘口’字로 구성된 각 채는 뒷마루를 가지고 있으며 문간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前·後에 퇴가 施設되어 있다. 문간채에 加設된 계단을 통하여 오르게 되는 2층은 내정을 향한 벽면에

유리창을 사용하였다. 또한 通間으로 構成하여 사찰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重層으로 구성된 寮舍의 경우 대개 부엌은 上·下 通間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臨鏡堂은 부엌의 일부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다락을 設置하여 별도의 收藏空間으로 활용하고 있다.

3-8. 華嚴寺 寂默堂

1782년에 건립된 寂默堂은 정면 6間과 측면 2間的 대방이 있는 본채와 부엌, 僧房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전에는 內庭에 水閣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없�지고 대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세면장이 위치하고 있다.



도면 8. 華嚴寺 寂默堂 平面圖

內庭으로의 출입은 다른 ‘口’字形 重層寮舍의 경우와 같이 부엌을 거쳐 행해지며 퇴를 통하여 각 방으로 들어서게 된다.

대방이 있는 본채와 부엌과 연결된 僧房 채에는 각각 前·後로 퇴가 施設되어 있으며 僧房이 두 줄로 배열된 內庭 아래쪽의 채에는 前面에만 퇴가 갖추어져 있다. 重層은 內庭의 아래쪽 채에 ‘一’字形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재로 외벽을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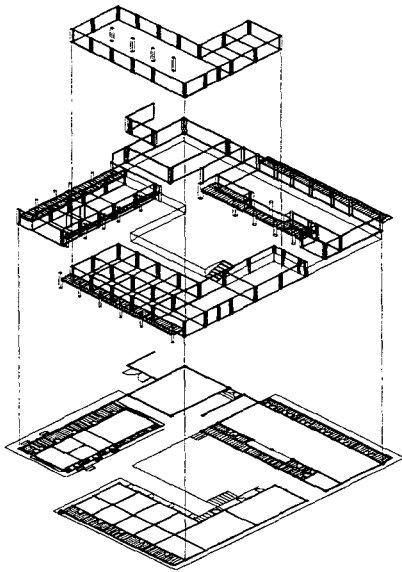


그림 8. 華嚴寺 寂默堂 層別 構成體系

4. 重層寮舍의 空間構成과 建築特性

4-1. 平面構成과 規模

重層寮舍는 地形의인 狀況과 上層構成의 形式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2. 重層構成 類型

構成類型	該當寺刹寮舍
地形的狀況	傾斜地 來蘇寺 說禪堂, 仙巖寺 千佛殿
	平地 仙巖寺 說禪堂·尋劍堂·滄波堂, 華嚴寺 寂默堂, 松廣寺 臨鏡堂·海清堂
上層構成形式	全體重層 仙巖寺 尋劍堂·千佛殿
	部分重層 來蘇寺 說禪堂, 仙巖寺 說禪堂·滄波堂, 華嚴寺 寂默堂, 松廣寺 臨鏡堂·海清堂

첫째로, 地形의 要因으로서 垜地의 高低를 이용하여 중층을 구성하는 경우와 平地에 重層

을 구성한 경우이며,

둘째로, 上層 構成 形式에 따라 평면 상부 전체를 重層으로 구성하거나 일부분만을 구성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들 重層寮舍는 1·2층 平面 構成에 있어서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1층은 부엌과 대중방, 승방들로 構成되게 되며, 2층은 수장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된다.

표 3. 重層寮舍의 平面構成

대방 ■ 부엌 ■ 방 ■■■■

寺刹寮舍	規模			備考
	대방 (間)	부엌 (間)	방 (個)	
來蘇寺 說禪堂	4×2	2×4	7	
	3×2	2×2	9	
仙巖寺	3×1.5	2×3	9	
	3×2	1×3	7	
	3×1.5	.	9	
松廣寺	2×2	3×3	9	
	5×1	.	11	
華嚴寺 寂默堂	5×1	4×2	15	

각 室의 규모는 대방이 평균 5間 이상으로 부엌이나 승방보다 간살을 크게 잡아 구성하고 있다. 부엌은 3間 이상이며 송광사 임경당과 화엄사 적묵당과 같이 대방보다도 큰 공간을 차지하기도 한다. 또한 승방은 單間으로 구성하여 여러 개를 두고 있다.

2층은 대개 대방보다 승방채의 상부에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공간의 위계질서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평면의 전체가 중층으로 구성된 경우도 대방은 통층으로 구성하여 타공간과 차별을 두고 있다.

重層寮舍에서 상층의 용도는 대부분 곡식이

나 물품 등을 수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仙巖寺 千佛殿은 부분적으로 茶室을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층의 면적은 모두 100m² 이상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仙巖寺 千佛殿과 尋劍堂은 약 300m²의 넓이로서 下層과 대비하여 94%, 85%의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4. 重層寮舍의 層別 面積

寺刹寮舍	1層面積	2層面積	面積對比	1層平面	2層平面	
來蘇寺 說禪堂	316.79 m ²	131.51 m ²	41.51 %			
仙巖寺	說禪堂	333.11 m ²	125.02 m ²	37.53 %		
	尋劍堂	358.45 m ²	307.96 m ²	85.91 %		
	千佛殿	307.59 m ²	291.35 m ²	94.72 %		
	滄波堂	411.89 m ²	146.79 m ²	35.63 %		
松廣寺	臨鏡堂	491.38 m ²	85.33 m ²	17.36 %		
	海靑堂	239.48 m ²	114.39 m ²	47.76 %		
	華嚴寺 寂默堂	457.95 m ²	104.8 m ²	22.89 %		

4-2. 重層寮舍의 空間과 構造特性

4-2-1. 空間的 特性

重層寮舍의 空間은 禮佛空間과 住居空間, 收藏空間이 복합적으로 수용된 형태이다. 인법당의 기능과 대중공양 등이 이루어지는 대방은 사찰 마당의 중심을 향하여 正面性을 가지게 되어 開放的인 성격을 띄는 반면 대방의 후면이나 주거공간에 해당되는 승방과 庫樓들은 외부 공간과 차단된 내향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口'字形 중층요사는 內庭 자체가 空間構成의 중심이 되어 寮舍 내부의 제반 생활이 내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또한 內庭은 종교행사 준비에 필요한 작업수행과 후원의 공간으로 개인 또는 집단적인 작업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內庭의 規模는 평균 4×3間으로 다소 협소한 느낌을 받지만 각 공간끼리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內庭은 形態에 있어서도 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수직적 공간성과 중심성을 가지는 3차원 공간으로 인식되어 진다.

仙巖寺 심검당과 華嚴寺 寂默堂 등은 장변이 15m 이상으로 비교적 큰 내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중층요사 건축시 공간간의 친밀도보다는 內庭 기능의 확장에 대한 배려로 생각할 수 있다.

표 5. 內庭의 規模

寺刹寮舍	內庭의 規模		
	間	實測值(mm)	
來蘇寺 說禪堂	3×3間	8200×8200	
仙巖寺	說禪堂	4×3.5間	10400×10000
	尋劍堂	3×3間	8400×8400
	千佛殿	3×3間	10000×10000
	滄波堂	5×3間	15000×9600
	海靑堂	5×4間	14000×12000
松廣寺	臨鏡堂	4×3間	12000×6400
	華嚴寺 寂默堂	6×4間	16400×12600

重層寮舍 內庭의 주출입은 주로 부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문간채나 협문을 통하여 진입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內庭으로의 출입은 두 개 이상을 두게 되는데 來蘇寺 說禪堂과 仙巖寺 千佛殿의 경우처럼 지형의 고저를 이용하여 부출입구를 구성하기도 한다.

출입구의 성격상 주출입이 이루어지는 부엌은 僧侶들의 사중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폐쇄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진입 필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출입구는 주로 승려들이 사용하는 기타 생활공간과 연계되면서 개방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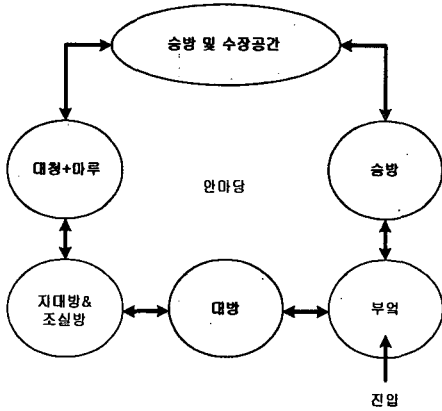


그림 9. 重層寮舍의 空間配置

重層寮舍의 空間構成에 있어서 각 실의 기능 또는 위계질서에 따른 공간배치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채와 채가 만나는 부분의 공간 설정이다.

重層寮舍는 코너부의 처리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방과 승방이 만나는 부분에 부엌을 배치시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비교적 제한된 空間構成을 보이는 民家와는 달리 중층요사의 경우 부엌 또는 코너부에 위치한 공간은 流動的인 성격을 띄고 있어서 연결된 채들을 擴張 또는 縮小할 경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空間的인 餘裕를 가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외부에 대해 폐쇄적인 공간적 성격을 지니는 중층요사는 더욱이 重層으로 구성되므로써 내정에서 느껴지는 공간의 圍繞感은 단층건물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重層寮舍는 내부의 입면처리나 부분적으로 외부와 연결된 시선을 확보하므로써 내정에서 느껴지는 강한 위요감을 감소시켜주고 있다.

표 6. 重層寮舍 內庭 進入 動線體系

寺刹寮舍	內庭進入空間	備考	
來蘇寺 說禪堂	부엌&협문 →고루		
華嚴寺 寂默堂	부엌&승방 채 사이		
松廣寺	海清堂	문간채	
	臨鏡堂	문간채	
仙巖寺	說禪堂	부엌&문간채	
	尋劍堂	부엌&협문	
	千佛殿	문간채→협문	
	滄波堂	협문	

大房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청은 개방된 시선을 확보해 주는 중요한 平面構成要素이다. 대청의 전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대청 후면의 바라지창은 시각적·심리적으로 폐쇄적인 마당을 개방적인 마당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준다.



사진 3. 仙巖寺 尋劍堂 大廳

4-2-2. 構造的 特性

重層建物の 가구를 結構하는 방식은 短柱를 중첩하는 방법과 通柱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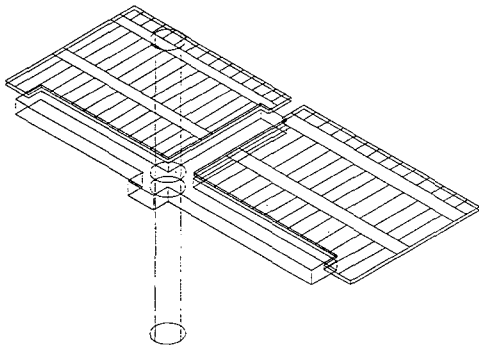


그림 11. 重層寮舎의 層架構

그러나, 重層寮舎는 단주를 重疊하는 방식을 主構造로 사용했으며 부분적으로 통주를 사용하고 있다.

短柱를 重疊하는 방식은 1層의 기둥 위에 장귀틀과 동귀틀을 짜 십자형으로 결구한 후 이 층마루를 구성하고 다시 그 위에 다시 2層의 기둥을 結構하는 것으로 중층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通柱는 공간의 수직적 확장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을 보강하기 위하여 평면이 꺾이는 회침부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평면의 상당부분이 중층으로 구성되는 경우 구조상 通柱로 구성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으나 재료 수급의 문제로 인하여 귀주와 대방채를 제외한 곳은 단주를 중첩하여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단주를 사용하는 곳은 장귀틀을 바깥쪽으로 평균 550mm 정도 돌출시켜 구조적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입면의장의 효과도 획득하고 있다.

重層寮舎의 가구 구성은 대방채의 경우 5檣으로, 그 외 부속되어 연결된 채들은 3檣으로 되어 있다. 대방채의 경우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중공양 등 대규모의 공간을 필요로 함에 따라 주간이 짧은 3檣 구조보다는 水平的으로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5檣 構造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사진 4. 仙巖寺 千佛殿 層架構

표 7. 重層寮舎의 架構構成 形式

寺刹名	寮舎名	대방채	승방&수장 공간	부역
來蘇寺	說禪堂	2高柱 5檣	3檣	通層
華嚴寺	寂默堂	5檣	3檣	通層
仙巖寺	尋劍堂	5檣	3檣	重層
	說禪堂	5檣	3檣	通層
	千佛殿	5檣	3檣	重層
	滄波堂	3檣	3檣	無
松廣寺	海清堂	5檣	3檣	無
	臨鏡堂	5檣	3檣	重層 (다락)

4-3. 지붕構成과 立面意匠

전통건축의 입면은 크게 기단부, 축부, 공포부, 지붕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중층요사의 지붕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맞배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방채에 부분적으로 팔작지붕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공간의 위계와 정면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표적인 몇 개의 重層寮舍 지붕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來蘇寺 說禪堂은 대방채와 부속채 모두가 맞배 지붕으로 되어 있어 지붕구성 형태상 位階秩序의 표현은 없으나 대방채가 있는 부분의 지붕을 가장 높게 구성하여 지붕의 高低로 공간의 위계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 6. 來蘇寺 說禪堂 지붕構成

仙巖寺의 尋劍堂과 滄波堂 역시 부속채 지붕의 경우는 맞배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대방채는 높은 層高의 맞배지붕 북측면을 팔작으로 구성하여 寮舍 내에서도 중심이 되는 空間임을 표현하고 있다.

松廣寺 臨鏡堂은 승방과 대방으로 이루어진 ‘口’字形 본체의 경우 맞배지붕으로 構成하여 연결하고 있으며, 溪流쪽으로 돌출시킨 누마루는 팔작지붕으로 구성하여 正面性을 강조하고 있다.

基壇은 평지에 건축되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연석 1단 쌓기나 막돌 바른층 쌓기로 구성이 되나, 경사지를 이용하여 건축한 경우는 지형의 段差로 인하여 자연석을 3단 이상으로 쌓아 기반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입면의 비례를 유지하고 있다.

軸部는 기둥과 벽이 그 구성요소가 되는데

공간의 위계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하였다. 正面性을 지니며 요사 자체의 공간 위계상 상위에 있는 대방채는 외부에 면한 부분의 경우 圓柱를 사용하였으나 대방채의 후면이나 기타 부엌, 승방 등의 구성요소는 方柱를 사용하여 차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重層寮舍의 지붕構成

寺刹名	寮舍名	대방채	기타공간	備考
來蘇寺	說禪堂	맞배	맞배	
華嚴寺	寂默堂	맞배	맞배	
仙巖寺	尋劍堂	맞배 + 팔작	맞배	
	說禪堂	맞배	맞배	
	千佛殿	맞배	맞배	
	滄波堂	맞배 + 팔작	맞배	
松廣寺	海清堂	맞배	맞배	
	臨鏡堂	맞배 + 팔작	맞배	

그러나, 平面의 전체가 重層으로 구성되는 來蘇寺 說禪堂과 仙巖寺 尋劍堂·千佛殿은 대방채 전면의 기둥뿐만 아니라 寮舍 내부에도 각 채가 연결되는 모서리 부분에 부분적으로 圓柱를 사용하고 있다.

壁面의 구성은 대개 외부는 판벽이나 심벽에 부분적으로 창호를 설치하여 폐쇄성을 띄고 있으나 內庭에 면한 입면은 많은 부분을 개방하거나 전면에 退를 구성하여 위요된 공간속에서도 공간적 여유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상하층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돌출된 장귀틀과 층보는 면의 분할을 통해 시각적으로 스케일을 조절하는 요소가 된다.

立面的 구성요소로서 基壇部, 軸部와 함께 고려되는 栱包部는 重層寮舍에 있어서 位階秩序와 正面性을 강조하기 위한 要素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방채 前面의 경우 대개 익공 구조를 하고 있으나 그외 나머지 공간들은 민도리식으로 단순히 처리하였다.



사진 7. 仙巖寺 尋劍堂 立面構成

5. 結 論

본 研究는 현존하는 '口'字形 重層寮舍를 대상으로 공간구조와 건축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重層寮舍는 조선 후기 社會的 요인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寺院經濟를 운영해나가기 위해 자구책의 일환으로 공간을 통합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건축되었으며 단층건물과는 다른 다양한 공간적 특성과 조형성을 보여준다.

重層寮舍의 建築的인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重層寮舍의 空間은 禮佛空間과 住居空間, 收藏空間이 복합적으로 수용된 형태이다. 인법당의 기능과 대중공양 등이 이루어지는 대방은 사찰 마당의 중심을 향하여 正面性을 가지게

되어 開放的인 성격을 띄는 반면 대방의 후면이나 주거공간에 해당되는 승방과 庫樓들은 외부 공간과 차단된 내향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重層寮舍의 下層은 주로 대방과 승방 그리고 취사를 위한 부엌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收藏을 위한 창고나 곳간 등이 한두칸 마련되기도 한다. 上層은 수장을 위한 공간으로 전용되고 있으나 仙巖寺 千佛殿은 茶室로 이용되고 있다.

內庭의 出入은 주로 부엌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부출입구를 構成하기도 한다.

2. 重層寮舍의 構造는 주로 短柱를 重疊시켜 구성하거나 부분적으로 2層까지 이어지는 通柱를 사용하고 있다. 短柱의 重疊은 하층 기둥 위에 장귀틀과 동귀틀을 짜 십자형으로 결구하여 층보를 구성하고 그 위에 다시 상층 기둥을 결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회침부 등에 통주를 사용하여 공간의 수직적 확장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을 보강하고 있다.

3. 重層寮舍의 지붕은 일반적으로 맞배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공간의 位階에 따라 부분적으로 팔작을 구성하기도 한다.

팔작지붕은 대개 主佛殿의 앞마당을 정면으로 하는 대방이 있는 부분에 構成되는데 이는 正面性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寮舍 자체 내의 대방이 갖는 위계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대방 전면만을 익공식으로 꾸며 타공간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4. 重層寮舍의 內庭에 면한 입면은 많은 부분을 개방하거나 전면에 개방된 退를 구성하여 위요된 공간속에서도 답답함을 줄여주고 있으며, 上下層 연결부의 장귀틀을 돌출시켜 구조적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面의 분할 등을 통해 스케일을 조절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는 추후 중층의 구조를 하고 있는 안동지방의 '口'字形 재사건축 등과 비교를 통해서 내정을 중심으로 하는 중층건축의 공간적 특성이 보다 다양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홍승재·최인호, 傳統住宅의 다락에 關한 研究, 한국주거학회논문집 8권2호, 1997
2. 주남철·김성도, 朝鮮末期 서울·경기 일원의 寺刹大房建築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권11호, 1998
3. 손세관, 中庭形 都市住宅의 空間構造에 關한 文化的 比較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권11호, 1994
4. 김봉건, 傳統 重層木造建築에 關한 研究, 서울대, 1994
5. 심보인, 昇州 仙巖寺에서의 生活과 空間, 연세대, 1996
6. 이응목, 요사채, 대원사, 1994
7. 이재창, 韓國佛敎寺院經濟研究, 불교시대사, 1993
8. 김봉열,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에 關한 研究, 서울대 박논, 1989
9. 김도연, 韓國寺刹寮舍의 建築特性에 關한 研究, 전북대 석논, 1993
10. 이완건, 韓國寺刹建築의 寮舍에 關한 研究, 홍대 석논, 1993
11. 성현경, 朝鮮後期 全羅道 寺刹寮舍의 空間構成에 關한 研究, 명지대 석논, 1997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haped Yo-Sa with two stories

Hong, Seung Jai

(Associate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Kim, Joung Hun

(Master's cours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o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shaped Yo-Sa with two stories in Buddhist temple. The Yo-Sa has had the function of space for not only monasticism but also living of buddhist priests and been one of the important spaces in Buddhist temple from the beginning of it. The Yo-Sa with two stories appeared mostly in the later Chosun Dynasty, so the origin of the Yo-Sa with two stories is thought that it might relate to the circumstances of temples in the later Chosun Dynasty.

Having got in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Buddhism lost the power that he has enjoyed since Korea Dynasty was established and the economic power of temples as well. Because of a change for the worse, the Buddhist priests should manage with reduced income and combine many buildings with various functions into a singular to overcome their circumstances.

Therefore a waekened economic power might be a primary factor which urged to change form of Yo-Sa from one-storied to two-storied.

The □-shaped Yo-Sa with two stories have the Dae-Bang-Chae for worship, Seung-Bang for Buddhist's living room in the bottom floor and garnering spaces to store up the agricultural produce, miscellaneous article, etc in the top floor.

The composition methods depend on the condition of the lay of land, intentional design, and so on. Therefore, the □-shped Yo-Sa with two stories shows the diversity of space composition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